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제1독서 : 이사 50, 4-7

제2독서 : 필립 2,6-11

복 음 : 마태 26, 14-27,66

이 주일의 화답송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 저를

버리시나이까?

숲정 이

강론

신앙의 힘

신원철 신부/고산 성당

신앙은 힘입니다. 기쁜 일은 더욱 기쁘게 해주고 고통스러운 일은 아주 작게 만들어 주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수고하고 짐 진 사람은 다 내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편하다."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신앙이 '힘'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가르쳐 주신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실 수가 있을까? 저런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끊임없이 품게 만들었던 어머니의 삶, 무척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7남매를 훌륭하게 키워주신 어머니의 삶은 신앙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제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알 것 같다고 수줍게 고백하시는 아버님의 변화된 삶은 신앙이 엄청난 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신부님 우리 큰아들놈은 하늘나라로 유학 갔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참 효자예요. 그 놈의 뺨이 아니었다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고산 성당의 사목 회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놈이 하느님 곁에 있다고 확신해요. 먼저 간 아들놈이 좋은 곳에 있다는 확신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신부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사목회장님도 분명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나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하느님의 사랑을 보았고, 나 다른 사람이 느껴보지 못한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네. 공평하신 하느님이..."라는 시를 어머니의 도움으로 힘겹게 읽어거던 젊은 자매님, 온 몸이 틀어져서 단 한 순간도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던, 그래서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던 자매님의 하느님은 공평하다는, 나는 하느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신앙고백 또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랑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힘이 있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수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일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수난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행복한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이 세상 사람중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하고 목숨까지도 바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오로는 확신에 찬 어조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십자가를 '기쁨은 더욱 크게 해 주고 고통은 아주 작게 만들어주는 신앙의 힘'으로 기꺼이 지고갑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영원한 행복의 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나만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가족들과 친척, 이웃들과 손에 손잡고 그 나라에 들어갑시다. 아멘.

소리

평상복의 미결수

교도소의 옛 이름은 너옥(牢獄), 전옥서(典獄署). 감옥 형무소이다. 너는 짐승의 집을 말하고 옥은 두마리의 개가 마주 보고 짓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다.

일제시대인 1923년부터 쓰여진 형무소는 우국충정이 죄가 되던 시대였으니 우리 민족의 한과 분이 맺힌 곳같아 듣기조차 싫다.

오늘의 교도소란 이름은 1962년부터 사용되었다. 1955년 유엔이 채택한 '피구금자 처우 최저기준원칙'을 기본 정신으로 한 명칭이다.

너옥, 전옥서, 감옥, 형무소 등이 응보형(應報刑)이라면 교도소는 교육형(教育刑) 장소로 바뀐 것이다. 교도소의 건축 양식도 구금본위나 감시위주에서 벗어나 처우본위로 바뀌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기결수는 어쩔수 없다지만 미결수라 할지라도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유·무죄를 기다리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죄가 있더라도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인데도 죄수복을 입고 있는 것이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사가 결정할 일이다.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며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 인권과 신체적 자유가 보장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근 법무부가 법정이나 청문회에 출석하는 미결수에게 평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한다. 모처럼 칭찬할 만한 잘한 일이다. [모]

숲정이 산책





1999년 성부의 해 - 아버지의 집을 향해 가는 해

“회심”

수세기 전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일도 바뀔 것입니다.” 그 창조적 “마음의 변화”를 회개(metanoia), 또는 “회심”이라고 부른다. 교황님께서 1999년에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이 “회심”이며, 현대 세계에 절실히 필요한 치유와 화해를 이루는 길도 바로 이 회심이다. 교황교서 「제삼천년기」에서 교황님께서 1999년의 “아버지께 나아가는 여정”을 “진정한 회심의 여정”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심”은 무엇을 뜻하는가? 교황님께서 그것을 “죄로부터” 돌아서서 “선(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신다.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회심을 “사고방식과 행동의 점진적 변화”로 설명한다. 예수님께서 “회심”(예수님의 말로 “회개”)을 당신과 당신의 길을 따르라는, 당신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의 핵심이라는, 더 인격적인 관계로 설명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초대와 요구로 당신 설교를 시작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마르 1,15). 곧 하느님의 “나라”는 “마음 안에서, 집단 안에서, 더 크게는 세상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화해시키시며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개인과 집단과 온 세상을 “다스리고” 변형시키시며 새롭게 하고 화해시키시도록 협조해 드려야 하는 것이다.

복음서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그리고 교황님께

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 아래 이루어지는 참된 회심의 세 가지 차원을 제시한다. 첫째로, 우리의 시각이다. 진실한 회심은 우리의 실패와 한계와 죄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기쁜 소식” 곧 “복음”을 믿는 것을 내포한다. 가끔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나 아름다움, 또는 비극과 같은 특별한 사건을 통해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개방하게 된다. 정녕코 새로운 눈으로 자기 자신과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하느님 사랑의 수용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눈을 통해 삶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부르신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회심은 자기 중심에서 신뢰로, 이기주의에서 모든 인간 존재와 하느님의 창조물들과 함께 하는, 마음과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 - 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이며, 우리는 이 가치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한다. 회심의 세 번째 차원은 우리의 삶과 생활 안에서 일어나는 점진적 변화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니 “나를 따라 오라.”고 당신 제자들을 부르신다. 그리고 복음서들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많은 이야기를 해 준다. 성령께서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시대와 환경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하도록 이끌고 계신다.

기쁘고, 은총의 대희년 2000년 대희년까지 272일 남았습니다.

전례 꽃꽂이 작품집
‘일꽃’ 창간호
전례에 따른 특별한 의미를 꽃으로 표현한 작품집 ‘일꽃’을 소개해 드립니다.
· 가격 : 종전 45,000원 → 현재 30,000원
가톨릭전례 꽃꽂이연구회
☎ 02-257-3210/02-412-6278
02-2267-3210/019-205-2556

이레침대공장
· 싱글 : 80,000원
· 더블 : 110,000원
· 쿤 : 160,000원
· 육, 맥반석 돌침대
대표 김 미 숙(안젤라)
전주호남제일문사거리 ☎ 211-6424
군산 대성학원 1F ☎ 445-4570

토탈 패션
I M A+
영캐주얼, 보세의류 전문 패션몰
김 문 식(베드로)
심 점 순(데레사)
객사위 K.F.C 앞
☎ (0652) 231-7853

제일장문외과
(구. 제일화문의과)
대장·항문 전문병원, (치질, 치루, 치열, 항문주위 농양, 변비), 유방 클리닉
의학박사 최 성 양(루가)
전문 의 안 해 선
익산시청 ↔ 북부시장 사이
☎ (0653) 858-7575, 7585

☉ **궁금해요**

성주간의 목, 금, 토요일은 전례가 특별하던데요.

성삼일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을 위한 사업을 당신의 빠스카 신비로 완성하셨습니다. 즉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수난과 부활의 빠스카 3일이며, 전례주년의 정점으로 빛나는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의 성삼일입니다.

성 목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만찬 때 성체성사를 제정하신 날로서 오전에는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 사제들의 공동집전으로 성유 축성미사가 거행되며, 예수님께서 애덕과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기념하는 세족례가 거행됩니다.

성 금요일은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날은 교회에서 유일하게 미사와 성사를 전혀 집전하지 않습니다. 이는, 성사가 그리스도의 행위이므로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의 전례는 말씀의 전례와 십자가 경배, 영성체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성 토요일은 교회가 주님의 수난과 죽음, 무덤에 계심을 기억하는 날로서 부활 전 야미사 전까지 제대도 벗겨진 채 그대로 있고 미사도 드리지 않으며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에 참여함을 깊이 묵상 합니다. 이날 밤은 하느님께서 인류를 위해 섭리하신 가장 밝고 아름다운 밤으로써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승리를 이룩하신, 참 삶으로 건너가심(빠스카)을 기억하는 부활성야의 예절을 거행합니다. 이 성삼일 동안 주님 구원의 신비가 모두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 성삼일 동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구원의 신비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요십이 (1338) 김병오



교구·제 단체 소식

1. 레지오 단원 교육 : 3월 29일(월), 둔율동 성당
2. 사제양성후원회 월례미사 : 3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가톨릭 센터
3. 성모기사회 월례회의 : 4월 10일(토)로 연기합니다.
4. 치명자산 십자가의 길 기도 : 4월 2일(금) 후 3시, 주례 - 이병호 주교님
* 십자가의 길 기도 전에 치명자산 입구(몽마르뜨 언덕 잔디밭)에서 오후 2시 20분부터 가톨릭 예술단의 '주님 수난 성극' 공연이 있습니다. 성극공연을 보실 신자분께서는 주님의 수난을 잘 묵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5. 가톨릭 문우회 모임 : 4월 3일(토), 오후 3시 30분, 가톨릭 센터

이병호 교구장님 주례 성주간 전례

- 주님수난성지주일 미사 : 3월 28일 오전 10시, 송천1동 성당
- 성 유 축 성 미사 : 4월 1일(목) 오전 10시 30분, 중앙성당
- 주님 만찬 미사 : 4월 1일(목) 오후 8시, 인보성체 수도회
- 십자가의 길 기도 : 4월 2일(금) 오후 3시, 치명자산
- 주님 수난 예절 : 4월 2일(금) 오후 8시, 우전성당
- 부활 성야 미사 : 4월 3일(토) 오후 9시, 중앙성당
- 예수 부활 대축일 미사 : 4월 4일(주일) 오전 10시 30분, 나운동 성당

수녀원 건립 기금마련 벚꽃 축제
 일시 : 4월 5일부터 4월 12일까지
 장소 : 송광 운수 연수원 옆
 문의 : 소양성당 사목회 ☎ 244-3007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 4월 3일, 17일 오후 5시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장소 : 서강대학교 K관 뒷편
 대상 : 대학 재학이상 남자
 문의 : 김영섭 수사 ☎ (02) 719-1803

원아모집 해나라 아가 놀이방
 대상 연령 : 0세~취학전 아동
 유치원 정교사(4년전공)자격증을 가진 원장과 교사진
 박명선(젤마) 송천 주공 아파트 105동 103호 ☎ (0652) 253-5515

백마익스프레스
 ·포장이사 ·일반이사 ·용달사업부
 ·고층사다리보유 ·24시간 인부대기
 ·반포장 ·1톤, 2.5톤, 3톤 차량보유
 편리하고 안전한 이사 백마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정환(마르코) 인정미(프란치스코) ☎ (0652) 253-2453 H·P011-678-2486 무료전화 080-050-2482

LG 에어컨 예약
 15~23% 할인 + 6개월 무이자
 식당용 냉장고 파격세일
 백제로 빙상경기장 건너편
 원승연(도밍고) ☎ (0652) 241-2000

가나석유
 보일러 등유, 사무실 난로 등유
 보일러 무료 점검 서비스
 * 신속배달
 대표 : 임영남(클라라) ☎ (0652) 286-5151 (0652) 285-9495

■ 임순남·무진장지구 본당소식 ■

도통동 주임신부 625-0091 사무실 631-0091 주임신부 서석희
 F A X 633-0081 수녀원 632-6916 사목회장 김효곤

- ◎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순시기 : 사계양성을 위한 기도와 사랑의 저금통을 잘 키워주세요. 절식, 금식, 금육
- 1. 오늘은 주님수난 성지주일 : 사순절 공동 2차 헌금 있습니다
- 2. 차량 봉헌 하신 분 : 의명 30만, 익명, 박상호, 임순열 각 10만
- 쌍교동 성당 박태복, 김향영, 김재 각 3만, 안복순 2만, 서정옥 김수덕 1만, 누계 - 889만 * 감사합니다
- 3. 성유축성미사 : 4월 1일(목) 전 10시 30분, 중앙성당, 본당 전 9시 출발
- 4. 부활 판공 : 평일미사 후, 인일 공소 오늘 미사 후 5 주의 만찬미사
- 1일(목) 성목요일 - 12사도 세족례 6. 성체조배 : 1일(목) 후 7시 30분
- 7. 주님수난예식 : 2일(금) 후 7시 30분 * 성지복구 2차 헌금 있습니다
- 8. 십자가의 길 : 2일(금) 후 3시 * 전신자 참석 바랍니다
- 9. 부활 성야미사 : 3일(토) 후 9시, 미사중 판공교리 사신식
- 10. 꾸리아 열례회의 : 3일(토) 후 2시, 회합실
- 11. 세례식 : 3일(토) 후 2시, 유아세례, 성인(부활성야미사 중)
- 12. 금주 전례 : 해설 - 김조곤, 독서 - 이계혁, 김원정, 봉헌 - 박영규부부
- 13. 차주 전례 : 해설 - 양 규, 독서 - 김조곤, 정계자, 봉헌 - 이영진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12,900원 □ 교무금 : 835,000원

무주 주임신부 322-2308 사무실 324-0555 주임신부 박찬신
 324-3555 수녀원 322-2399 사목회장 이두홍

- 1. 성주간 : 주님 수난을 묵상하는 성주간입니다. 수난전례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① 성 목요일 - 후 8시 주님만찬미사
- ② 성 목요일 - 후 3시 십자가의 길, 후 8시 십자가 경배
- ③ 성 토요일 - 부활 성야미사 후 8시 * 초준비
- 2. 모임 : ① 사목회 - 6일(화) 공식미사 후
- ② 반회장 모임 - 금요일 아침미사 후 ③ 성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④ 여성분과회 - 7일(수) 3 중교성 교리 : 토요일 후 3시
- 4. 주일학교 교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예비신자 교리 : 신부님 - 수요일 저녁미사 후 수녀님 - 금요일 전 10시 30분, 주일 공식미사 후
- 6. 엠프헌금 : 김두옥 5만, 덕산주유소 10만 * 감사합니다.
- 7. 금주 전례 : 해설 - 이관승, 독서 - 강원석, 임이숙 봉헌 - 신민철 부부, 보편기도 - 강원석, 임이숙
- 8. 차주 전례 : 해설 - 정과옥, 독서 - 강원석, 한금순 봉헌 - 이두홍 부부, 보편기도 - 김원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312,500원 □ 교무금 : 305,000원

쌍교동 주임신부 633-1004 사무실 633-4004 주임신부 박중신
 유치원 633-4005 수녀원 626-1004 사목회장 공무택

- ◎ 우리 본당은 ① 공부하는 신자 ② 기도하는 교우 ③ 용서하는 공동체
- ◎ 사순절 공동 2차 헌금 : 오늘 사랑으로 가진 바를 나누자
- 1. 성삼일 전례(목, 금, 토) 후 8시
- 2. 부활 대축일 미사 : 전 9시 - 초,중,고, 10시, 후 7시 30분
- 3. 초청신부 고해 성사 : 목요일(4월 1일) 미사 전후
- 4. 공동체회의 시작 : 성 금요일 전례중
- 5.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 후 3시
- 6. 성서특강 시작 : 30일(화) 저녁미사 후 - 창세기
- 7. 금년도 애령회 가입합니다 : 1년회비 - 5천원
- 8. 부활맞이 성당 대청소 : 30일(화) 전 10시 * 많은 참석바람
- 9. 부활 대축일 제대꽃 봉헌합니다
- 10. 4월 3일(토) : 어린이 미사 없습니다 11. 자모회 : 2일(금) 전 10시
- 12. 축하 혼인 : 오늘 12시 신랑 - 김희복, 신부 - 임효임(골목바)
- 13. 금주 전례 : 해설 - 강 스테파노 독서 - 고과란치스코, 이프란체스카 봉헌 - 김요한 비안테, 정철대갈데
- 지난주 봉헌금 : 1,070,700원 □ 교무금 : 1,309,000원

순창 주임신부 653-1004 사무실 652-1004 주임신부 정순현
 F A X 653-0414 수녀원 653-3135 사목회장 박건홍

- 1. 성당 지붕 보수와 페인트 공사에 전조치한 분 감사합니다. : 박원희, 김현석, 김안나, 박건홍, 한정리, 윤오순, 박순금, 조기망, 윤강훈, 김성애 총 32명 2,990,000원
- 2. 사순절을 기록하게 지냅니다 : 성삼일(1일 - 성목요일 2일 - 성금요일, 3일 - 부활성야) 전례에 참석합니다.
- 3. 주일학교 성지순례 : 오늘 전주 치명자산 십자가의 길
- 4. 판공성사를 아직 못 보신 분 : 미사 전후 성사 보세요.
- 5. 꾸리아 : 오늘 공식미사 후 6. 사목회 : 30일(화) 전 10시 미사 후
- 7. 부활맞이 대청소 : 4월 1일(목) 10시 * 저녁에 주님 만찬미사 있음
- 8. 연도경연대회 : 6월 13일(일) 각 Pr. 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병자 봉성체 : 4월 2일(금) 10시
- 10. 금주 전례 : 해설 - 오경순, 독서 - 박원희, 박종만 봉헌 - 김호진 부부, 청소 - 사도들의 모후 Pr.
- 11. 차주 전례 : 해설 - 안정임, 독서 - 김신자, 박건용 봉헌 - 정준원, 청소 - 자모신, 마리아 Pr.
- 지난주 봉헌금 : 본당 354,800원 쌍치 41,500원 복흥 39,100원 □ 교무금 : 500,000원

진안 주임신부 433-0750 사무실 433-2541 수녀원 433-1531 유치원 433-2293 주임신부 현유복 사목회장 허인석

- 1. 사순절 2차 헌금 : 공식미사 중 *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
- 2. 성주간 전례 : ① 4월 1일(목) - 미사후 8시, 세족례 미사 중 ② 2일(금) - 십자가의 길 후 3시, 금식과 금육 * 성지복구를 위한 특별 헌금 ③ 3일(토) 부활 성야 미사 후 8시
- 3. 부활 대축일 행사 : ① 1부 - 미사 전 10시 30분, 본당 테니스장 ② 2부 - 만남의 자리, 점심 ③ 3부 - 공소별 노래자랑, 줄다리기 및 경품추첨 등

오수 주임신부 644-9386 사무실 642-6319 주임신부 김봉술
 F A X 642-6319 사목회장 정철만

- ◎ 99년 오수는 ...
- 어르신들 공경하는 공동체 · 말씀과 몸으로 봉사하는 공동체
- 지역사회를 아끼는 공동체 · 함께 가요, 우리!
- ◎ 이등목욕차량 복지서비스 : 목욕수혜자, 자원봉사자, 재정후원자 모집 (목욕봉사, 재정후원, 운전봉사, 의료봉사, 미용봉사, 안경맞춤봉사, 미사와 기도) - 지로번호 7648931
- 1. 성삼일 전례안내 : ① 성 목요일(4월 1일) - 주님의 만찬미사 후 7시 ② 성 금요일(2일) - 금식, 금육 후 7시 수난예식 ③ 성 토요일(3일) - 부활대축일 성야미사 후 7시 * 성주간 전례와 부활 대축일 전례 게시판 참조
- 2. 미사 후 본당 대청소 : 청년회 *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 3. 목욕봉사 운영위원회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30일)
- 4. 부활 성가연습 : 주일미사 후
- 5. 금주 전례 : 해설 - 문판이, 독서 - 김영선, 김인순
- 6. 차주 전례 : 해설 - 문판이, 독서 - 김육기, 문정희
- 지난주 봉헌금 : 171,500원 □ 교무금 : 140,000원

임실 주임신부 643-3661 사무실 642-2164 주임신부 정천홍
 F A X 642-2164 수녀원 643-3660 사목회장 이창호

- ◎ 오늘은 주님수난 성지주일입니다 : 2차 헌금 있음
- 1. 구역미사 : 신전공소 - 28일(오늘) 후 7시 30분 성수공소 - 31일(수) 후 7시 30분 * 판공성사는 공소에서
- 2. 성삼일 전례안내 : ① 성 목요일 - 4월 1일 후 7시 30분 ② 성 금요일 - 2일 후 3시 십자가의 길, 후 7시 30분 십자가 경배 예절 * 성지복구 위한 2차 헌금 있음 ③ 부활성야미사 밤 10시, 예수부활 대축일 낮미사 전 10시 30분
- 3. 건진성사(4월 11일) : 건진 대수자들은 세례증명서와 대부모를 정하여 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주시시오 * 신청마감 - 4월 8일
- 4. 울트라아 성당주변 정리 : 4월 2일(금) 후 1시 30분
- 5. 성령세미사 기간에 봉사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새로 전임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김경희(추가) 신명, 심미혜(아네스) - 입실 김준길(대전 안드레아) 가족 - 신명
- 지난주 봉헌금 : 453,300원 □ 교무금 : 255,000원

장계 주임신부 353-0610 사무실 351-0111 주임신부 최응준
 F A X 351-0605 수녀원 353-0611 사목회장 송남준

- ◎ 오늘은 사순절 2차 헌금 있습니다
- 1. 금주 모임 : 애령회, 자모회
- 2. 차주 모임 : 구역장 모임
- 3. 판공성사 안보신 분 : 30일(화) 저녁미사 후
- 4. 성주간 전례 : ① 성 목요일 - 주님만찬미사 8시 밤샘성체조배 시간표 참조 ② 성 금요일 - 십자가의 길 후 3시 주님수난예식 후 8시 ③ 성 토요일 - 부활성야미사 9시
- 5. 예수 부활 대축일 : 다음주 전 10시
- 6. 혼인 미사 : 4일(일) 12시 30분 신랑 - 이상길(요한), 신부 - 이희숙
- 7. 금주 전례 : 독서 - 이상강, 이현숙, 수난복음 - 염정선, 최학부 기도 - 유영숙, 봉헌 - 임태순 가정
- 8. 차주 전례 : 독서 - 송남준, 정진주 기도 - 김선옥 봉헌 - 김, 권 가정
- 지난주 봉헌금 : 308,200원 □ 교무금 : 505,000원

장수 주임신부 351-8888 사무실 351-2264 주임신부 강명규
 수녀원 351-1228 사목회장 박동표

- ◎ 신앙을 기쁨으로 삼고 생활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 ◎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 1. 성주간 예절 : ① 성 목요일 - 주의 만찬미사 후 8시 미사후 밤샘 성체조배 * 게시판 참조 ② 성 금요일 - 십자가의 길 후 3시, 주님수난 예절 후 8시 ③ 성 토요일 - 부활 성야미사 후 8시
- 2. 부활 대축일 미사 : 전 10시 30분
- 3. 성당 대청소 : 오늘 미사 후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 4. 성 금요일은 금육과 단식의 날입니다.
- 5. 오늘은 2차 헌금 있습니다.
- 6. 금주 전례 : 해설 - 권봉조, 독서 - 김호준, 이유미 봉헌 - 이범수 부부
- 7. 차주 전례 : 해설 - 김미숙, 독서 - 정연수, 김은주 봉헌 - 박동표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456,700원 □ 교무금 : 180,000원

- 4. 부활 대축일 제대꽃 봉헌자 접수 : 본당 사무실, 수녀원
- 5. 1인당 예비신자 헌분이상 전교하여 부활 대축일(4월 4일)에 봉헌합니다 6. 예비신자 환영식 : 11일(일)
- 7. 레지오 전단원 교육 : 28일(일) 후 2시~4시, 진안성당
- 8. 미사시간 변경 : 4월 1일부터 저녁미사→후 8시, 새벽미사→전 6시
- 9. 성당 청소 : 성조의 모후 - 부활 대축일 맞이 대청소 4월 3일(토)
- 지난주 봉헌금 : 543,550원 □ 교무금 : 881,000원